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3**
www.ucac.or.kr



금세기 최고의 영화 음악가 미셸 르그랑 작곡
1997 프랑스 몰리에르상 최우수 뮤지컬 상, 최우수 연출상 수상작
벽을 뚫는 남자 (이종혁, 마이클리, 고창석, 임철형 출연)

유쾌 발랄한 상상의 재미와 진한 감동의 러브 스토리!

〈벽을 뚫는 남자〉는 몽마르뜨를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하여 지나다니는 능력 이 생긴 한 평범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유쾌 발랄하게 풀어낸 뮤지컬이다. 출연진들의 감칠맛 나는 호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벽을 뚫는 남자〉는 국내에선 지난 2012년 겨울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는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들의 기대와 기다림을 채워줄 것이다.

2012년의 감동, 그 이상을 안겨줄 초호화 캐스팅

이종혁, 마이클 리, 김동완, 고창석 등 출연

〈벽을 뚫는 남자〉에는 이종혁, 마이클 리가 더블캐스팅되어 "듀티올" 역할로 무대에 오른다.

신사의 품격의 이종혁은 지난해 순수하고 신사다운 원작 속의 '듀티올'보다 더 듀티올 같은 모습으로 여심을 사로잡았으며 마이클 리는 1995년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투이'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한 뒤, 전설적인 여배우 '레아 살롱가'와 함께 출연한 뮤지컬 〈미스사이공〉, 〈알라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미국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저마다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지닌 두 배우가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듀티올'을 기대해 볼만 하다.



4.26(토) PM3:00 PM7:00 | 4.27(일) PM2:00 PM6:00 | 대공연장(4회)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가 (공연시간: 135분 휴식 15분)

문의 : 문예회관 275-9623, 인터파크 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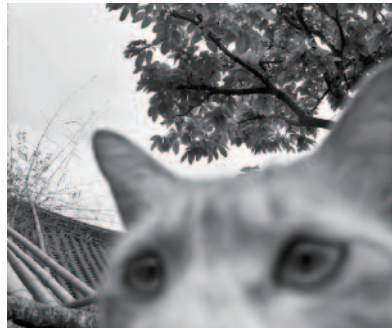
티켓가격 : V 8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40,000원(유료회원 30%, 단체 20%)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ontents



04

기획공연

_ 모닝콘서트

시립예술단 공연

_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_ 시립합창단 제88회 정기연주회

_ 시립무용단 울산-장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한·중 합동공연』

_ 시립교향악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_ 청소년합창단 기획연주회

청소년교향악단 기획연주회

14

기획전시

_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

_ 올해의 작가 3월 - 박태진

예술을 말하다

_ 예술축제를 찾아서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_ 리하르트 바그너(II)

29

함께하는 문화의 향

_ 고객만족도 조사

공연·전시가이드

_ 3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3월호

통권 172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편집 박용하·이미경

편집 박용하, 이미경,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2014 모닝콘서트 시즌7

세계음악기행 첫번째 이야기

“겨울의 나라 러시아”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건축과 음악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풀어 해설하며 대표적인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주요 장면을 모아 “위풍당당 대한민국”의 배경 영상으로 꾸며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작곡가들의 생생한 삶의 스토리와 연주자들이 러시아 유학시절 직접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하는 콘서트가 펼쳐진다.



주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상설기획공연인 11시 모닝콘서트가 세계음악기행 시리즈로 오는 3월 25일 오전 11시 소공연장에서 그 첫 번째 세계음악기행을 떠난다고 밝혔다. ‘겨울의 나라 러시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건축과 음악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풀어 해설하며 대표적인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준다.

차이콥스키, 라이마니노프 등 작곡가들의 생생한 삶의 스토리와 연주자들이 러시아 유학시절 직접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하는 콘서트로 꾸며진다. 특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주요 장면을 모아 ‘위풍당당 대한민국’의 배경 영상으로 꾸며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02년 브람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주현을 리더로 하고 첼리스트 이솔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용진으로 구성된 Solist A가 이끌어간다.

Solist A는 2002년 브람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주현을 리더로 하고 첼리스트 이솔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용진으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다. 각자 솔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휴식과 지식이 공존하는 삶의 싹표와 같은 대중과 교감하는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트리오를 결성하였다. 역사 속의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작곡가들이 살았던 집 이야기와 대표적인 건축물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며 명곡들을 피아노 트리오로 편곡하여 들려준다.

Solist A는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재치있게 소개하며 파헬렐의 ‘캐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라밤바’, ‘피치카토 폴카’, ‘라데츠키 행진곡’ 그리고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이날 연주를 펼친다.

특히, Solist A는 관객을 무대로 모셔 바흐의 ‘미뉴엣’을 핸드벨로 함께 연주하고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 상품을 주는 등 관객과 교감하는 장치들을 통해 관객들이 자연스레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erformance Guide

2014. 3. 25(화)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000원(회원 30%, 단체 20%),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출연 Solist A (Vn. 김주현 VC 이솔 Piano 김용진)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환희의 봄맞이”

Performance Guide

2014. 3. 4(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천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류성규, 이태영 (객원)
 협연 서민정, 강나경(바이올린)
 출연 83명(단원 79명, 객원지휘2명, 협연2명)

객원 지휘



이 태 영 지휘자

서울에서 태어나 7세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10세부터 지휘자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윤해중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휘과에서 박은성 교수를 사사하였으며, 도미 후 뉴욕의 매네스 음대 대학원지휘과에서 David Hayes를 사사하며 오케스트라 지휘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전문 연주자과정에서 수석입학 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졸업하였다. 당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지휘자인 Joseph Colaneri와 오페라 지휘를 공부했으며, American Ballet Theatre에서 수석지휘자 Charles Barker와 발레 지휘를 공부하고 있다.



류 성 규 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전문연주자 과정(Diplom)과 최고 연주자 과정(Examen)을 졸업하였다. 드레스덴 음대 주최 <Sir Colin Davis 지휘코스>와 <Hartmut Haenchen 지휘 코스>를 수료 하였다. 드레스덴 음대 재학 중 지휘과 학생으로는 최초로 음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상주하고 있는 Semper Oper에서 지휘를 하였고 현대 오페라 프로젝트의 부지휘자와 수석 오페라 코치를 역임하였으며 Landesbuehne 오케스트라, Neue Elbland Philharmonie, Goerlitz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또한 AUE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초청받아 지휘를 하여 독일 작센 언론에서에서는 <작곡가의 열정을 뛰어난 지휘 테크닉으로 잘 이끌어내고 협연자를 배려하는 젊은 동양인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정치웅 교수를 사사하고 독일에서는 Prof. Klemm Ekkehard와 Karl Heinz Zettel에게 사사 받았다.

협연



서 민 정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Shlomo Mintz)에게 “성숙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중을 매료시키는 젊은 연주자다”라고 극찬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서민정은 4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예원학교를 졸업, 서울예고 2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재 선발에 합격하여 예술사와 전문사,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일찍이 이화·경향, 한국일보, 중앙, 부산, 난파, 동아 콩쿠르 등 국내 수많은 콩쿠르에 대거 입상하였고, 2001년 독일 마인츠에서 열린 이프라 니만 국제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면서 국내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특히 갈라 콘서트에서 마인츠 심포니와 연주한 멘델스존 협주곡은 많은 찬사와 기립박수를 받았다.



강 나 경 바이올린

2013 EuroAsia International Violin Concur(일본) 최연소 1위
 2012 바로크콩쿨 1위
 2011 소년한국일보 금상
 2011 광명예술콩쿨 현악부문 전채 1위
 2010 음악교육신문사 1위
 2013 제3회 그대있음에 협연(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치웅)

2013 제6회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지휘 정주영)
 2013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수원시향 협연(지휘 김대진)
 2013 '김남윤과 바이올린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콘서트' 출연(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 수원시향 협주곡 오디션 입상 및 협연(지휘 정주영)
 2012 대관령 국제음악제 어린이음악회 초청연주
 2012 국제예술교육 심포지움 초청연주
 2012 아시아 법제포럼 초청 연주
 2012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성공기원음악회 출연

사라사테 : 찌고이네르바이젠 Sarasate Zigeunerweisen op.20

사라사테의 작품 중 대부분이 그의 조국 스페인의 색채를 풍부하게 담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만인이 즐겨하는 이 작품은 집시들 사이에 전하는 무곡 등을 소재로 하여 작곡하였다. 제목은 “집시(Gypsy의 노래)”라는 뜻인데, 사라사테가 헝가리에 여행을 하였을 때, 그 지방 집시들의 민요 몇 개를 소재로 하여 그 기법과 표정을 가해 이 같은 바이올린 곡을 작곡하였다. 기교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곡이지만 아주 화려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세련된 문화인의 애상과 정열을 담은 곡이다.

베토벤 : 교향곡 제 7번 Beethoven Sympony No.7 in A major, op.92

이 교향곡은 1812년 42세 때의 작품인데 그는 불안한 생계와 꺾병, 위병 등으로 몹시 괴로웠을 때였다. 그렇지만 그는 설 사이도 없이 계속 명작을 써냈다. 바그너는 이 작품을 무도의 신화라 했으며 지금까지 세계의 예술이 창조하지 못했던 명쾌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나폴레옹군이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여 유럽을 휩쓸던 때였으며 온 유럽의 모순이 집결된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교향곡은 그 구성과 수법, 내용, 악기의 편성 등에서 볼때 그의 교향곡 중에서 제 1위에 꼽힌다는 것이다.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9번 Shostakovich Symphony No. 9, op.70, E-flat major

연주 시간은 24 ~ 25분인 짧은 교향곡이며, 베토벤의 「 제9번 교향곡 」 등이 장편이라는 관례로 본다면 매우 예상 밖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5년 8월30일 에 완성되었으므로, 「 승리의 교향곡 」이라 불리고 있다. 그해 11월 3일 레닌그라드에서 초연 되었다. 제 1악장 Allegro 제2악장 Moderato - Adagio 제3악장 Presto 제4악장 Largo - Allegretto. 작곡 태도를 고전(古典)으로 돌려 , 작은 규모 속에 완성된 예술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

Program

사라사테 : 찌고이네르바이젠 바이올린 : 강나경

Sarasate Zigeunerweisen op.20

베토벤 : 교향곡 제 7번

Beethoven Sympony No.7 in A major, op.92

휴 식

사라사테 : 카르멘 환상곡 바이올린 : 서민정

Sarasate Fantasy on Bizet's "Carmen", op.25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9번

Shostakovich Symphony No. 9, op.70, E-flat major

울산시립합창단 제88회 정기연주회

미국지휘자협회 초청 기념 음악회

North Central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울산시립합창단은 3월 19일부터 3월 26일(미국기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Iowa Des Moines)에서 개최되는 NCACDA(North Cental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_북미합창지휘자연협회) 컨퍼런스(Conference) 행사에 초청을 받아 미국합창지휘자협회원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지휘자들과 합창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음악회를 펼치게 된다. 또한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와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도 교민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3월 7일(금)에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마련되는 제88회 정기연주회는 미국에서 연주할 3회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대표적인 곡들을 선곡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고자 마련하는 음악회다.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합창단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만큼 세계적 수준의 합창음악을 소개 한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시민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수준높은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ogram

Kyrie - 허걸재 곡

O Magnum Mysterium - 전경숙 곡

봄노래 산유화 - 김소월 시, 김순남 곡, 전경숙 편곡

바람은 남풍 - 조혜영 곡

남촌 - 김규환 곡, 조혜영 편곡

콩, 너는 죽었다 - 김준범 곡

주법 - 손정훈 곡

가요편곡 아침이슬 - 김민기 곡, 김준범 편곡

담다디 - 김남균 시, 곡 이범준 편곡

세노야 - 고은 시, 김광희 곡, 조혜영 편곡

Intermission 휴식

민요 경복궁타령 - 김희조 편곡

아리랑 - 김준범 편곡

괘지나 칭칭 - 오병희 편곡

Performance Guide

2014. 3. 7(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적용) 지휘 구 천



울산-장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한·중 합동공연



Program

1부 울산시립무용단/ A.D. 암각화

창조/ 일어서는 영혼들의 외침
대지의 춤/ 흙바람이 불어 피어오르는 숨결
바다의 춤/ 내 물빛의 사랑
화합/ 절망의 상처 치유하는 생명의 암각화

2부 동북사범대학교 예술단

동북양가(东北秧歌)/ 여자군무
설역고풍(雪域鼓风)/ 티베트 남자 독무
화요화(花腰花)/ 타이족 군무
말리화(茉莉花)/ 여자독창
동방(东方)/ 신민악 연주
화지지(花履棘)/ 하니족 군무
이원수필(梨園随笔)/ 현대무용
경운(京韵)/ 민악연주
천홍(千红)/ 여자군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장춘(長春)과 대한민국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중심지로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 산업수도 울산이 한쪽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춤사위와 고유의 정서가 담긴 민족음악을 통해 울산-장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중 합동』 공연을 마련한다. 1부는 울산시립무용단이 한국의 문화유산이면서 울산의 자랑인 암각화를 주제로 한 A.D. 암각화가 펼쳐지고, 2부는 장춘 동북사범대학교 예술단의 화려한 춤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성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으로 설화와 역사를 당대의 공연미학으로 해석하여 예술의 향유권 제공과 각 국가의 미적 감동을 전달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3. 25(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안무 및 연출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교향악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2014 교향악축제 참가 기념음악회 '말러'

이 경 숙 피아노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숙은 서울예고 재학 중 장학생으로 도미, 명문 커티스 음악원에서 호로조프스키와 루돌프 제르킨을 사사하였다. 유학 전 국내에서 이화·경향 콩쿠르 특상을 수상하였으며, 커티스를 졸업하던 해 1967년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을 비롯하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오디션에서 우승함으로써 국제적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그 실황이 전 미국에 방영되어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경숙은 커티스 음악원 졸업 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꾸준하면서도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연주자이다. 크리스찬 페라스, 피에르 푸르니에, 유디스 사피로, 아론 로잔드, 줄리어스 베이커, 마르시알 세르베라, 필립 물러,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알토 노라스, 폴 토르틀리에 등 세계의 거장들과 협연하였으며, 스위스 로망드, 홍콩 필하모닉, 로얄 필하모닉, 프라하 심포니, 모스크바 필하모닉, 동경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In Eb major "Emperor", op.73

1809년 그가 38세 때의 작품으로 그의 원숙기를 대표하는 최대의 걸작이다. 당시 베토벤은 빈의 성벽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나폴레옹군의 공격을 받아 큰 혼란을 일으켰었다. 그는 지하실에 피신한 신세였지만 작곡에 태연히 열중했

었다. 이 곡은 루돌프공에게 헌정되었다. "황제"란 이름은 곡상이 장대하고 숭고하며 그 구성이 호탕함에 비추어 마치 왕의 품격이 있다하여 그같은 별명으로 통한다. 말하자면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최고라는 뜻에서 그 같이 불리어졌다. 오케스트라의 취급이 때로는 그 구성이 웅장하여 마치 교향곡을 연상케하는 부분도 있다. 독주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관현악을 상대로 자기의 표현 수단을 피력했다. 제1악장 알레그로Eb 장조 4/4 박자 소나타 형식. 위엄을 보이는 이 악장은 서주부에 오케스트라의 눈부실 만한 화음으로 시작한다. 관현악은 독주악기 보다 비중이 큰데, 피아노는 분산화음으로 화려하게 카덴차풍으로 연주한다. 그것이 되풀이 되다가 웅대한 제1테마가 제시되며 제2테마는 스타카토로 제1, 제2바이올린에 연주된다. 이것이 여러 갈래로 극히 다채로운 진전을 보인다. 섬세 교묘한 맛의 극치를 구가하여 서정적이며 파동적인 멜로디로 나타난다. 발전부는 관현악이 제1테마로 시작하여 호탕한 맛이 나며 재현부는 관현악이 합주로 제1테마가 얼마후 제2테마를 조용히 변주한다. 마지막 카덴차가 연주된 뒤 클라이맥스에서 힘차게 끝난다. 제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B장조 4/4박자 자유로운 변주곡형식.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느린악장이다. 비애를 그의 자량으로 삼은 듯한 불굴의 정신에 그 침뚫은 감동 등은 듣는 이의 심혼에 육박한다. 제3악장 론도 알레그로 Eb장조 6/8박자 론도 형식. 피아노의 빛나는 모습의 특성을 여기서 발휘시켰다. 수법은 교묘한 극치를 보이며 색채 또한 웅장하다. 이는 모두 그의 원숙기의 경치를 엿볼수 있을 것이다. 제3의 테마까지 보인 거인의 무용을 연상케 한다.



말러 : 교향곡 1번 “거인” 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이 교향곡은 1884년 그가 카셀에서 궁정 극장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에 착수하여 1888년 라이프치히 시립 가극장의 지휘자로 있을 때 완성되었다. 1889년 부다페스트 왕립 가극장의 지휘자로 있을 때 초연되었다. 이 교향곡은 '거인' 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독일 낭만파의 작가 장 파울 리히터의 같은 이름의 '거인' 이란 시에 의거해 제명을 붙였다. 그러나 이 곡이 직접 그 줄거리를 묘사한 것은 아니다. 제1부 「젊은이, 아름다운 덕행 결실, 고뇌의 나날에서」, 제2부에는 「인간적인 희극」이란 표제를 붙여 정서의 관념을 명확히 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곡은 인생에 눈뜬 20대의 서정미가 넘치는 청년들의 일반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협소한 세상에서 싸우며 왕성한 혈기로 인생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케스트레이션의 편성은 대규모적이지만 그는 모든 악기를 가요풍의 선율로 교묘하게 노래한 점에서 성과를 올렸다. 여기서는 유도동기적인 수법을 볼 수 있고 형식적인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보수적이다. 대단히 아름답고 힘찬 곡이다. 제1악장 유연하고 장중하게 D장조 4/4박자. 소나타 형식, 제2악장 힘차게 움직여서 A 장조 3/4박자. 세도막형식, 제3악장 완만하지 않고 장중한 위엄을 가지고 d단조 4/4박자. 세도막 형식. 제4악장 태풍 같은 움직임으로 2/2박자이며 마지막은 제1악장의 서주에 나오는 여러 모티브가 느슨한 템포로 지난날을 회상하는 양 반복한다. 뒤이어 제2테마가 첼로로 연주된 후에 승리의 개가처럼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힘차고 정렬적으로 연주한다.

Program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Beethoven Piano Concerto No.5 In Eb major
“Emperor”, op.73

1. Allegro
2. Adagio un poco mosso
3. Rondo. Allegro

말러 : 교향곡 1번 “거인”

Mahler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1. Lanfsam, schieppend
2. Blumig
3. Kraftig bewegt, doch nicht zu schleppen
4. Sturmish bewegt

Performance Guide

2014. 3. 27(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이경숙 (피아노)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봄의 왈츠』



오창록



박루진

청소년교향악단은 객원지휘자 오창록의 지휘로 전 세계 교향악단들이 신년에 가장 많이 연주한다는 “왈츠의 왕”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왈츠 곡들로 흥겹게 막을 연다. 왈츠(Waltz)는 흔히 쿵- 짹- 짹의 3박자 리듬에 기초한 어깨가 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흥겹고 즐거운 음악이며, 폴카(Polka)는 2/4박자 리듬의 보헤미아 지방에서 시작된 민속 춤곡이었다. 시계 초침바늘이 톱- 톱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톱- 톱에서부터 까만 밤하늘에 무섭게 들리는 천둥과 번개를 관현악으로 묘사한 폴카 그리고 황제와 같은 위엄과 화려함이 충만한 황제 왈츠 등, 여러 왈츠곡이 연주된다. 이날의 연주회 만큼은 정숙자세의 공연 감상보다는 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어깨를 활짝 펴고 좌우로 움직이며 흥겨운 리듬을 타보는 재미도 가져보시길 바란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에서 제2곡 “옛성”과 모뉴슈코의 “할카” 서곡 등을 연주한다. 이밖에도, 특별출연으로는 동평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박루진 양이 가야금산조를 독주한다. 가야금을 원래는 가얏고라 불렀다. 오동나무 공명판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을 안쪽을 받쳐놓고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전통 국악기로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등 한국음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청아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국악기로 자리해 나가고 있다. 서양악기로 구성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회에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를 소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관람 청소년들에게 국악 독주 감상을 통해 우리 음악을 바로 알게하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Program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톱- 톱폴카, 천둥과 번개, 트리치-트리치 폴카, 황제왈츠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중 제2곡 “옛성”

특별출연 - 가야금 박루진 “가야금산조”

모뉴슈코 - 할카 서곡

Performance Guide

2014. 3. 18(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오창록 출연 박루진(가야금) 전석 천원

울산시립 청소년 합창단 기획 연주회 『봄의 하모니』



한성용



청소년합창단은 한성용 지휘자의 지휘 아래, [봄의 하모니]란 제목으로 드보르자크의 “집시의 노래”와 “미스 야채 선발대회”라는 주제를 가진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합창곡들을 선사한다.

집시(Gipsy)는 유럽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랑민족을 말하며 이들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특유의 리듬과 정열적이고 우아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민속 무곡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 소개되는 5곡의 [집시의 노래]들 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는 드보르자크의 가곡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라 할 수 있는데, 효자였던 드보르자크가 어린시절 어머니가 노래를 가르쳐주시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금시대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노래라 볼수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합창곡 [미스 야채선발대회]의 3곡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이색적인 작품인데 만물의 생동기인 봄에 야채들도 신선하게 자라나 그 맵시를 뽐내는 모습을 의인화시켜 노래로 엮은 곡이다. 새학과 신학기를 맞이한 우리 청소년들도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들을 활짝 열고 힘차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소프라노 한인숙의 주옥같은 목소리와 CBS소년소녀합창단(지휘 권정성)의 특별출연도 함께하여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풍만한 감성 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Program

청소년합창단 : 집시의 노래(5곡)

- 내마음의 노래, 들어라 나의 트라이앵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가벼운 옷매는 자유롭게

특별출연 - 소프라노 한인숙, CBS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미스 야채선발대회(3곡)

- 미스 서울진 양파양, 미스 강원진 토마토양, 미스 경기진 가지양

Performance Guide

2014. 3. 11(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한성용

출연 소프라노 한인숙, CBS소년소녀합창단

전석 천원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 I

김기엽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김성민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성산미술대전 통합 대상 수상

김태인

신라대학교 조소전공 대학원 졸업,
신라대·동아대 출강

문성주

부산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국제조각심포지움 1등 수상

민태연

동국대학교 졸업, 한마음미술대전 대상,
울산미술대전 특별상 수상

박수광

개인전 8회, 단체전 70회,
전국조각가협회·대전조각가협회 회원

어호선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충청북도미술대전 대상 수상

이재길

용평 눈축제 대상 수상,
광주광역시 북구청 구민생(문화예술) 수상

이호동

조선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수료,
태백 눈조각 금상 수상

차치만

울산미술대전 특선·우수상,
한마음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민태연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1〉

연중 상설 전시 추진으로 도심 속의 열린 문화공간 조성

전국 조각가들의 다양한 야외조각 작품 초청 전시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야외공간을 이용한 연중상설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조각가 21명과 울산 조각가 9명의 다채로운 야외 조각품 60점이 총 3부에 걸쳐 각 115일씩, 345일 동안 연중 상설로 전시될 예정이다. 2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 I 부 전시에는 김기엽, 김성민, 김태인, 문성주, 민태연, 박수광, 어호선, 이재길, 이호동, 차치만 작가의 야외조각 작품 20점이 선보인다. 김기엽 작가는 인체 목조작업으로 인간의 삶에서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 오거나 돌아가는 회귀본능을 표현하고 있다. 김성민 작가는 철을 이용한 선형의 카메라, 영사기, 조명판 등 촬영기기들을 통해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또 다른 탈출구를 작품화 했다.



• 어호선 作
〈움트다〉



• 김태인 作
〈Door to door II〉



• 이호동 作 〈부자 되세요〉



• 문성주 作
〈생성-수호신〉

김태인 작가의 〈Door to door〉은 철판을 구부리고 다듬어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주는 문과 또 다른 문 사이의 스토리를 표현한 작품이다. 문성주 작가는 벽돌로 추상적인 수호신을 형상화한 작품을 출품 하였고, 석조작업을 하는 민태연 작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화강석을 이용하여 색다른 질감의 따뜻함으로 작품을 표현했다. 박수광 작가는 〈자연의 잉태〉를 주제로, 보령오석을 이용하여 다듬고 쪼고, 갈아서 다양한 질감을 가진 작품이며, 어호선 작가는 브론즈와 대리석으로 자연의 움트임과 순환을 곡선과 직선을 사용하여 구체화한 작품이다.

동물 형상을 강렬한 색채와 함께 표현한 이재길 작가의 작업은 남녀노소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특히나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동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붙이고 떼어내는 흥미로운 오브제 형식으로 작품으로 구현해 냈고, 차치만 작가는 나무와 창을 모티브로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려진 자연공간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선사한다.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 낼 도심 속의 문화공간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하며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Performance Guide

2월 6일 ~ 5월 31일 야외전시장



• 차치만 作
〈틀을 벗어난 II〉



• 박수광 作 〈자연의 잉태〉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박태진작〉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4 「3월의 작가 박태진展」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4” 두 번째 주자인 「3월의 작가 박태진展」이 3월 1일부터 3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에서 개최된다.

박태진 작가는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사진가로 이번 전시에 소개할 작품들은 사랑, 슬픔, 외로움, 이별, 상처 등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래동화 속 이야기에 빗대어 흑백 사진작품으로 보여 준다. 작품의 특징은 특정 사물을 클로즈업 하지만 포커스를 배경에 두어 확대 되어진 대상은 뿌옇게 보여 지고, 멀리 있는 배경들이 뚜렷하게 보여 지는 색다른 시각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게 한다.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박태진작〉

흑백 사진 속에 드러나는 작품들은 마치 특정 대상 뒤에 숨겨진 작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는 것 같아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는 메시지들이 작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올해의 작가 개인전」은 지역작가 창작활동 지원과 울산 전시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는 전시로, 올해 총 10명의 작가들이 선정되어 매월 릴레이 형식의 개인전이 개최되고 있다.



• 작업중인 박태진 작가



Profile

개인전

2012

궁리(窮理)(아나몰릭갤러리, 울산)

201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갤러리 브레송, 서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영상갤러리, 울산)

단체전

2013

사분오열(문화예술회관, 울산)

신화마을 지붕없는 미술관展

2012

접촉(孝)(문화예술회관, 울산)

신년하례전(영상갤러리, 울산)

2011

가족展(서면 영광도서관, 부산)

시종의 경계(해운대문화회관, 부산)

철매반죽 순회전(미로미로 갤러리, 부산)

2010

신화마을 174번지展(신화마을 갤러리, 울산)

EGO : 에고 2인展(영상갤러리, 울산)

출판

201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사진집 (주)디자인하늘소

2013

이바구길 (주)디자인하늘소

2009

The National Rode No.7 7번국도

(다비치, 서울)

기타

2013

신화마을 산신령경로당 'SAJIN PAN' 운영

울산 고래축제 메인 촬영

2009

매그넛과 함께하는 아바스 여름 워크샵 수료

(갤러리M, 서울)

베이징 포토페어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

Seoul Photo 갤러리 부스 참가

Performance Guide

3. 1(토) ~ 3. 30(일), 30일간

갤러리 씽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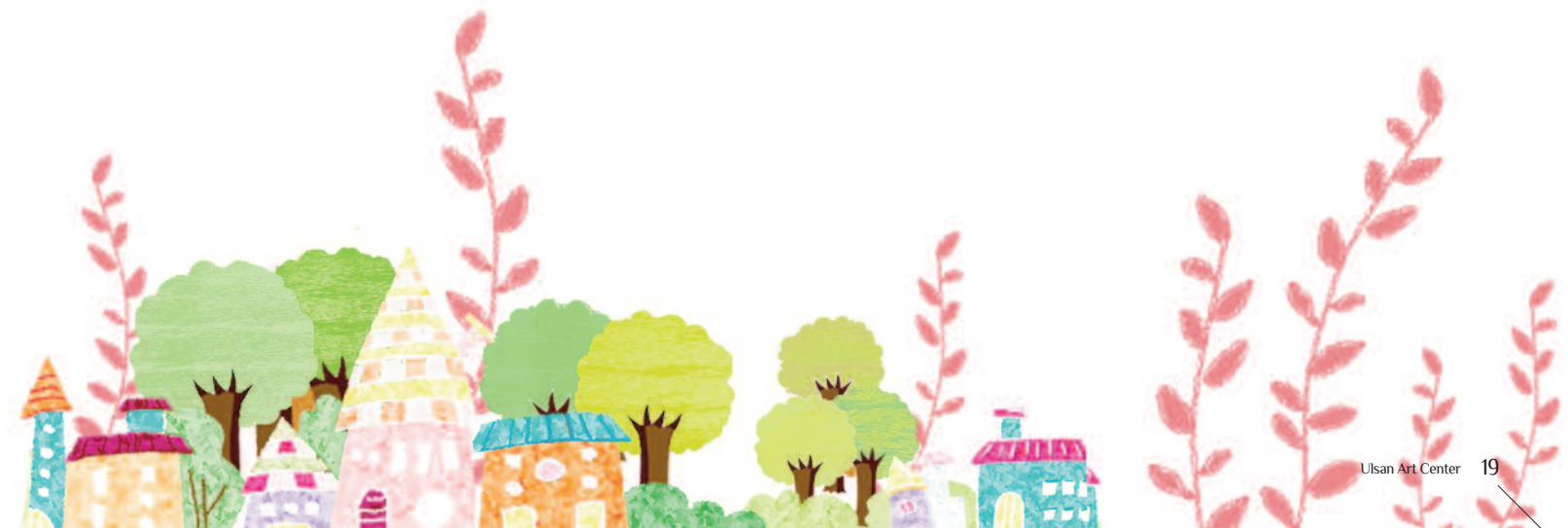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IIIX)

Part-2 문화의 향

울산문화예술회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3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겨울에도 지루할 틈이 없는 런던II



‘영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셰익스피어와 브리티시 팝이 아닐까 합니다. 2014년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탄생 450주년이죠. 그의 생가와 묘지가 있는 스트라트포드(Stratford)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고, 주요 극장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잇달아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영국을 방문한다면 ‘셰익스피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가하면 국내에서도 여름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록페스티벌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죠? 봄부터 수많은 뮤직 페스티벌이 전역에서 열리고,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브리티시 록 밴드는 물론 세계의 팝 뮤지션들이 런던의 공연장으로 찾아듭니다. BBC 라디오를 듣다 보면 뮤즈가 미니 콘서트를 열고, 엘튼 존이 게스트로 나온다니까요.

록페스티벌, 팝 음악의 천국 런던

영국의 록페스티벌을 얘기하자면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s)>을 가장 손에 꼽겠지만, 글래스톤베리는 런던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 꼬박 사흘 동안 텐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관계로(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그곳에서는 씻고 먹고 자고 등등의 일반적인 현상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과감히 생략하고, 런던에서 즐길 수 있는 산뜻한 페스티벌에 주목해 보시죠. 올해도 <필드 데이(Field Day, 6월 6~7일, Victoria Park)>, <다운로드(Download, 6월 13~15일, Donington Park)>, <러브 박스(Love Box, 7월 18~19일, Victoria Park)>, <라티튜드(Latitude, 7월 17~20일, Henham Park)>, <레딩 페스티벌(Reading Festival, 8월 22~24일, Richfield Avenue, Reading)> 등의 뮤직 페스티벌에 세계의 음악 팬들이 몰려들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런던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팝시장이죠. 우리가 손꼽아 내한공연을 기다리는 브리티시 팝 밴드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뮤지션들이 일 년 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있으니 나의 여행일정과 그들의 공연일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 보이 조지(Boy George), 백스트리트 보이즈(Backstreet Boys), 게리 바로우(Gary Barlow), 포리너(Foreigner), 제임스 블런트(James Blunt), 배리 매닐로우(Barry Manilow), 제프 벡(Jeff Beck), 마이클 볼튼(Michael Bolton), 원 디렉션(One Direction), 이글스(Eagles) 등 신예에서 전설이라 불리는 뮤지션들의 공연까지 정말 다양한 무대가 런던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템스 강변은 날마다 축제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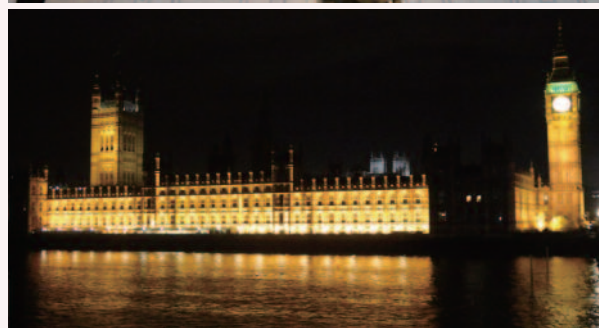
유럽의 주요 도시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고, 그 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형성 돼 있는데요. 템스 강만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일단 타워브리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런던을 담아낸 그림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밤이면 환상적인 조명을 밝히며 런던 야경에 방점을 찍는 곳입니다. 서쪽으로 내려오면 밀레니엄 다리를 사이에 두고 찰스 왕자와 다이애나 왕비가 결혼식을 올린 세인트 폴 성당과 현대 미술관인 테이트 모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유독 목가적인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셰익스피어 글로브(Shakespeare's Globe)라는 노천극장입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집필하고 공연했던 인근에 있던 극장을 재

현재 놓은 곳이에요. 지붕이 뚫려 있는 3층 규모의 원형극장에서는 연중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공연이 없을 때는 내부 투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달빛 아래 셰익스피어의 대표작품들이 공연되는데, 2014년은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더 다채로운 작품과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그것도 영어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너무나 이색적인 공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달빛 아래 맥주를 마셔가며(심지어 무대 앞의 스탠딩이에요.) 관람하는 관객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런던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

런던의 엄청난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주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영국박물관, 서양 미술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내셔널 갤러리, 17세기 이후 영국 미술을 모아둔 테이트 브리튼, 세계적인 현대 미술관 테이트 모던, 장식미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 자연사 박물관, 과학 박물관 등 세계적인 수준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이들 박물관과 갤러리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세계의 유명 박물관이 그렇듯 영국박물관 역시 몇 시간만에 다 둘러볼 수는 없는데요. 이집트나 그리스 등 고대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겁니다. 내셔널 갤러리에는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서양미술이 연대순으로 전시돼 있는데, 영국의 막강한 힘을 대변이라도 하듯 고흐의 <해바라기>, 람브란트의 <자화상> 등 주옥같은 유럽 회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테이트 브리튼은 터너, 블레이크 등 17세기 이후 영국 정통 미술품을 소장한 갤러리인데,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는 놓치지 않아야 할 작품입니다.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모던은 원래 화력발전소였던 건물을 개조해 미술관으로 꾸몄는데, 웅만한 광장을 능가할 크기의 라운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작품이지요. 회화, 오브제, 조각, 설치미술 등 당대 거장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작가들까지 상상할 수 있거나 또는 상상을 뛰어넘는 흥미롭고 재밌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런던에서 기대하지 않았으나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웠던 것은 도심 곳곳에 있는 공원입니다. 앞서 소개한 뮤직 페스티벌 상당수가 도심 공원에서 열려요. 런던은 유럽의 도시 가운데 공원이 가장 잘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활하는 버킹엄 궁을 중심으로 세인트 제임스 파크와 그린 파크가 있고, 로열 앨버트 홀 쪽에는 켄싱턴 가든이, 이외에도 하이드 파크, 리젠트 파크 등이 유럽의 여유를 대변하듯 일 년 내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꽃과 나무는 물론이고 백조, 흑조, 거위, 오리 등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조류와 청설모가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요. 이쯤이면 런던, 참 매력적인 도시 아닌가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면 런던은 일 년 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입니다!



● 글 윤하정 KBS앵커, TBC 방송기자들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휴학 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함 께 하 는 음 악 이 야 기

바이올린 명장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인 거 같다. 한번은 친구와 함께 은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 선생님은 우리에게 요즘 한참 배우고 있는 악기라며 색소폰 이야기를 꺼내셨다. 2년 넘게 꾸준히 배우고 있고 갈수록 좋은 악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며 한창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더니 급기야 우리에게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집안 내 연주하기 좋은 곳을 물색하시고는 덩굴나무가 멋들어지게 장식된 곳을 무대삼아 연주를 시작하셨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행복해보여서 연주를 듣는 내내 그 행복 바이러스가 내게도 전달되는 듯 했다. 지금도 선생님이 색소폰을 가까이하며 행복한 생활 음악인으로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긴 잔상으로 남아있다.

요즘 1인 1악기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선생님처럼 취미삼아 정말 멋들어지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집안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 피아노를 보며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워볼까 했지만 생각으로만 그쳤고 또 주변에서 플루트나 클라리넷을 배워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에 악기만 알아보다 그만 두길 수차례니 악기와 나는 인연이 없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생각이 이쯤 머물게 되니 파블로 데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 1844-1908)의 지고 이네르바이젠(Zigeunerweisen)이란 곡이 떠오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상황에 이 곡의 서두가 장엄하게 흐르기도 하지만 이번엔 좀 코믹하게 개그 프로그램의 좌절 모드 느낌으로 지고이네르바이젠의 서두가 흐르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란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난다.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의 서두는 그야말로 인상적이다. 애잔하면서도 아찔하게 솟아오르는 바이올린 선율에 온 신경이 몰두된다고 할까.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바이올린의 서정성과 현란하고 화려한 기교들의 경이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고이네르바이젠은 사라사테의 대표곡으로 '집시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곡은 클



래식하면 떠오르는 견고한 이미지에 집시의 노래라는 이름 그대로 집시 음악의 뜨거움이 덧입혀져 있다. 집시 음악은 즉흥 음악의 자유로운 정신이 덧입혀져야 제 맛 아닌가. 이 곡에는 클래식 음악의 정통성과 집시 음악의 깊이가 동시에 느껴진다. 애수 어린면서도 생동감이 있고 예민하지만 화끈하기도 하다. 비장하고 애잔하게 흐르는 인상적인 짧은 도입부에 이어 본격적인 집시의 노래가 느릿하게 이어지고 후반부에 강렬한 리듬을 바탕으로 바이올린의 관능적이고 화려한 기교가 펼쳐지면 과연 사라사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곡을 작곡했나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사라사테는 그 자신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스페인 출신으로 5살이 되던 해에 음악을 시작해 8살 때 이미 대중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신동이었다. 그가 즐겨 연주하는 이탈리아의 명품 악기 스트라디바리가 10살 때 스페인 여왕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의 연주자로서의 실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거기다 파가니니 이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찬사까지 받았으니 지고이네르바이젠이란 작품이 그냥 나온 작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지고이네르바이젠은 대단히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이다. 그래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곡으로 연주하고 있지만 사라사테 생존 당시에는 이 곡을 완벽히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사테 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가 보여준 연주가 당대 관객들을 얼마나 열광하게 했는지 상상이 간다. 하지만 파가니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연주자'라는 의심 섞인 수군거림과 조롱, 시기, 질투를 받았던 것처럼 사라사테도 처음에는 보수적인 평론가들에게 가볍고 촌스러운 연주자라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엄격하고 절제된 독일 바이올린 악파의 연주법이 유행하고 있을 때라 사라사테의 화려한 연주는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연주회장은 늘 뜨겁게 달궈졌다.

그의 오스트리아 빈 데뷔 시기는 1876년이다. 비에니아프스키(Henryk Wieniawski)와 요아힘(Joseph Joachim) 심지어 레오폴트 아우어(Leopold Auer)까지 가세한 빈의 바이올린연주체는 그야말로 비르투오조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다. 하지만 사라사테만의 우아하면서도 열정적인 음색은 바이올린 전성기를 열었고 랄로, 브루흐, 생상과 같은 당대의 거물 작곡가들도 사라사테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바이올린 작품을 헌정했다. 그리고 사라사테의 업적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교적인 정확성을 알려줬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선보인 세련되고 정확한 기교와 연주법은 현대 바이올린 연주법의 시초라고 할 만큼 바이올린 음악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지고이네르바이젠을 감상하며 사라사테가 차지하는 바이올린 음악계의 비중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그리고 유명한 비평가가 사라사테를 두고 천재라고 한 말에 정작 자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다고 이야기한 일화가 있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 없이 멋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해내긴 힘들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다. 벌써 3월이다. 악기를 배우는 일이 됐든 연초 세운 목표가 됐든 자신이 그려놓은 계획이 있다면 모든 일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 얻은 결과물이란 점을 가슴에 새겨본다.

● 글 김수연 KBS 울산라디오 「러브 클래식」 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진을 찍듯, 옛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그림을 그려 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했다. 초상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가장 발달한 장르의 하나였고, 주로 조각이나 회화로 제작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대화 그림(conversation piece)’이라고 하는 독특한 집단 초상화가 유행했다. 일반적인 초상화를 증명사진에 비유한다면, 대화 그림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약간의 설정을 섞은 스냅 사진일 것이다. 대화 그림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원에서 환담을 나누거나, 실내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주로 담았다.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인 게인즈버러(Thomas Gainsborough)의 초기 작품인 〈앤드루스 부부〉(도판 1)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담은 일종의 대화 그림이다.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게인즈버러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13세 무렵 당시 유럽 최대의 도시였던 런던에 가서 그림을 공부하며 여러 화가와 교류했다. 그는 풍경화를 가장 선호했지만, 잘 팔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막 가정을 꾸린 20대 초반에 잠시 고향 서포크(Suffolk)에 머문 그는 풍경화와 가장 주문을 받기 쉬운 초상화를 결합한 작품을 제작했는데, 〈앤드루스 부부〉가 일례이다. 그림의 주인공인 앤드루스(Robert Andrews)와 부인 카터(Francis Mary Carter)는 각각 22세, 16세이던 1748년에 결혼했고, 이 작품은 그들이 결혼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게인즈버러의 『앤드루스 부부』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판 1





도판 2



도판 3

화면의 왼쪽에 있는 커플을 보면 남편은 의자에 기대어 비스듬히 서 있고, 부인은 나무를 구불구불하게 휘어 만든 로코코 풍의 의자에 앉아 있다. 인물들의 뒤로는 결혼을 통해 소유하게 된 영지가 펼쳐진다. 부유한 지주 계층 출신인 앤드루스는 게인즈버러보다 2살 위였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옆에 앉은 앤드루스 부인은 직물업으로 부를 쌓은 집안 출신이었고, 지참금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시기 결혼은 남녀 간 사랑의 결과라기보다는 양 집안 사이의 계약이었고, 이들의 결혼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앤드루스의 집은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고, 자기네와 걸맞은 집안의 신부를 맞이하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신분 상승을 꾀했다. 이는 그림 속 앤드루스의 자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신부가 지참금으로 가져와 자신의 소유가 된 영지 속에 자랑스레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 둘은 모두 평상시에 입을 착용한 옷을 입고 있고 비격식적인 자세를 취해, 마치 우연히 그림을 위한 포즈를 취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앤드루스와 게인즈버러는 같은 문법학교(중등교육기관)를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더욱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앤드루스는 사냥을 하고 돌아온 듯 여기저기 구겨진 혈렁한 사냥용 외투를 입고 있고, 허리춤에 화약 주머니가 매달려 있다. 그의 발치에는 사냥개가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 앤드루스 부인도 한 벌로 된 정장 드레스가 아니라 당시 부인네들이 여름에 평상복으로 입는 스커트와 재킷이 분리된 옷을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늘색 비단 옷은 앤드루스 부인의 부모의 초상화 같은 이 시기 게인즈버러의 다른 초상화에도 자주 등장했다(도판 2). 비단의 섬세한 광채가 잘 묘사된 다른 부분과 달리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무릎 부분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게인즈버러나 당사자인 앤드루스 부부가 이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는 기록도 없다. 추측만 무성하네, 혹자는 이후 태어날 이들의 자녀를 그리기 위해 비워 놓은 것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이 시대의 여느 초상화에서처럼 책이나 자수물, 혹은 앤드루스가 잡아온 사냥감을 그려 넣으려 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피 묻은 사냥감은 부인의 옷을 더럽힐 것이고, 밀밭이 펼쳐지고 양떼가 뛰노는 영지 한 복판에서 부인이 책을 읽거나 수를 놓을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이 그림은 결혼 기념 초상화이고, 이들 옆에는 노랗게 익은 밀 다발이 놓여 풍요와 다산을 예고한다. 즉 이 두 남녀의 결혼도 이들이 소유한 땅만큼 풍부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 소원은 이루어져서, 앤드루스 부부 사이에서는 9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앤드루스 부인은 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떴고, 앤드루스는 재혼하여 80세까지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한 교회묘지에 나란히 묻혀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 게인즈버러는 초상화가로 유명했지만, 자신은 풍경화가말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고, 자신은 풍경화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풍경화에 대한 게인즈버러의 애정을 반영하듯, 풍요로운 영국의 시골 풍경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밀은 노랗게 익어 있고, 중경에는 울타리가 쳐진 초지에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다. 밀밭 가장자리에 있는 이 부부의 뒤로는 딱갈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앤드루스의 가문이 딱갈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지주계급임을 암시한다. 자연의 요소를 한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한 예는 게인즈버러가 이 시기에 제작한 다른 대화 그림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도판 3). 하지만 이 시기 대부분의 풍경화는 실내에 있는 화가의 작업실에서 제작되었다. 유화물감을 휴대할 수 있는 주석 튜브는 100여년이 지난 1840년경에서야 등장했고, 이전의 화가들은 풍경화를 그릴 때도 야외에서 습작을 하고, 작업실에서 작품을 제작했다. 게인즈버러 또한 실내에서 <앤드루스 부부>를 그렸고, 그랬기에 앤드루스 부인이 섬세한 비단옷을 입고 뒤축이 없는 신발을 신고도 우아하게 시골 들뜬 한 가운데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앤드루스 부부>는 영국 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꼽히지만,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줄 곳 앤드루스 집안의 소유였고, 게인즈버러 탄생 2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린 1927년에야 비로소 공개되었다.

도판 1 토마스 게인즈버러, <앤드루스 부부(Mr and Mrs Andrews)>, 1750년경, 캔버스에 유채, 69.8x119.4cm, 런던 내셔널갤러리.

도판 2 게인즈버러, <카터 부부(Mr and Mrs Carter)>, 1747-8년경, 캔버스에 유채, 91.2x71cm, 테이트 브리튼.

도판 3 게인즈버러, <그레이브너 가족(The Gravenor Family)>, 1754년경, 캔버스에 유채, 90.2x90.2cm, 예일대학 영국미술센터.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RIX)

• 01



• 02



01 _ 바그너 02 _ 주디트 고티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연예술 역사상 주요한 이정표를 세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첫째 적자본은 148,000마르크!(오늘날 추산으로는 약 21억원 정도) 바그너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처럼 여성 편력에 또 하나의 경력을 더 붙인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필가 테오필 고티에의 딸이며 시인이자 역사소설가인 주디트 고티에(Judith Gautier 1845~1917)와 오랜 인연이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다. 하지만 코지마에게 곧 알려져 바그너는 이 젊은 여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이즈음 바그너 심장에 이상 징후가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온 바그너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바그너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이탈리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게 된다. 이제 바그너는 드레스덴 시절부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파르지팔'의 대본집필과 작곡 작업으로 관심을 집중한다. '파르지팔'에 대한 바그너의 관심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1845년 드레스덴 시절 '로엔그린'의 대본을 집필하면서 독일 옛 전설을 연구하였다. 그 당시부터 파르지팔과 티투렐 이야기에 흥미를 가져 이 내용으로 대본을 만들 결심을 했다. 바그너는 볼프강 예센바하의 산문시 '파르지팔', 작자미상의 14세기 서사시 '마비노기온', 드 트로와의 '페르치발레 가로와, 성배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독창성, 종교 철학적 사상을 접목시켜 1874년 초안 작성, 1877년 대본을 완성하고 곧바로 작곡에 착수한다. 1880년 뮌헨 궁정가극장에서 바그너 지휘로 루트비히 왕이 참석한 가운데 '파르지팔' 전주곡을 초연하게 된다. 이 두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휴양지 팔레르모에서 1882년 1월 바그너가 의도한 종합예술로서 신비적인 일대 종교극 '파르지팔' 전곡이 완성된다.

극장상연을 목적으로 한 신성화된 축제극이라는 의미에서 '무대 신성 축제극'이라고 명명한 '파르지팔'은 옛 전설을 중심으로 카톨릭의 '성배 수호의 성찬', 개신교의 '성 금요일의 기적' 등의 신앙을 기초로 한다. 세속적인 어떠한 것도 모르고 단지 사랑과 동정만을 느끼는 파르지팔이 인간의 구제를 고양시킨다는 점, 기독교적임과 동시에 불교의 열반사상, 동양의 염세사상, 윤회설, 동물 숭배사상, 동성에 코드 등 모든 요소가 혼재되어 '니벨룽의 반지' 이후 바그너가 만년에 가지고 있던 철학관과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적으로도 바그너가 이 악극에 등장시킨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은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보다 훨씬 원숙해진 반음계와 온음계의 절묘한 혼용, 합창과 관현악이 빚어내는 선율의 조화와 대위법적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882년 제2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7월26일 헤르만 레비 지휘로 '파르지팔' 전작품의 초연이 이루어진다. 이 무렵부터 바그너 심장의 이상징후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요양차 가족들과 함께 베네치아 벤드라민궁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런 시기에 바그너의 인생관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다. 그는 베네치아



에서 집필한 에세이 <인간의 여성성에 관하여>에서 언제나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수단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성혈(聖血)을 이어받은 인간 사이의 사랑'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1883년 2월13일 오전 바그너와 코지마 사이에 큰 다툼이 있게 된다. '파르지팔' 초연에서 꽃처녀 역을 맡은 영국 출신의 젊은 소프라노 프링글(Carrie Pringle)과 바그너 관계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그 날 오후 바그너는 협심증 사망했다. 바그너 시신은 바이로이트로 옮겨져서 반프리트 정원에 묻히게 된다. 인간으로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많았지만, 그가 남긴 예술에 관한 족적은 거대할 수 밖에 없다. 베르디나 부르크너 같이 진정으로 애도를 표한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드뷔시나 찰스 아이브스 같이 그의 업적을 폄하하는 사람들 있었다. '바그너' 라는 인물에 대해 가장 적절히 표현한 대문호 토마스 만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그너의 생애를 마무리하려한다. “.. 한명의 사상가이자 인격체로서 바그너는 수상쩍은 인물이다. 그러나 예술가로서 바그너는 거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극장에 운집한 관객 속에서 전율과 찰나의 행복과 심오하고 감동적인 의미를 엿보게 한 수많은 순간들을 가져다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바그너의 오페라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바그너 일생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바그너 사후인 1883년부터는 코지마가 이끌었다. 초창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재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1876년 1회 개최 후 1882년이 되어서야 2회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그너리언들의 도움과 주정부의 중재에 의해 이 페스티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페스티벌은 초창기부터 유명한 지휘자나 가수들에게는 공연을 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겨우 차비정도 뿐인 적은 출연료를 받거나, 심지어는 출연료 없이도 공연에 참가했다. 코지마는 바그너의 유지를 이어받아 '딩 사이클'을 포함한 바그너의 모든 작품을 원전 그대로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바그너 시대와 똑같이 제작 공연하였다.



• 05



• 06



07 _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전경

1906년 코지마가 은퇴하고 아들 지크프리트(1869~1930)가 이 페스티벌을 이어받는다. 그는 바이로이트에 새로운 무대와 프로덕션을 소개했으나, 1930년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지크프리트의 영국인 아내 윈프레드(1897~1980)의 손으로 페스티벌이 넘어간다. 윈프레드는 나찌당이 결성되기 훨씬 전, 1920년대부터 아돌프 히틀러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그의 강력한 후원자였다. 그녀와 페스티벌의 지도자들은 살벌한 나찌의 제3제국 아래서도 예술적인 독립성을 일부 유지하기도 했다. 제3제국 시절 독일 전역의 모든 공연장에서 유대인과 외국인 가수들 공연이 금지된 후에도 바이로이트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의 공연이 가능했고, 히틀러는 이런 바이로이트 공연을 관람했다.

제3제국 아래 바이로이트는 이들 공연의 전통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바그너가 창안해내었던 19세기 풍의 오래된 무대를 더 이상 공연에 사용 못하게 되자 새로운 프로덕션을 기획하면서 변화는 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바그너 작품 공연에 대한 혁신의 길을 열어준 셈이기도 했다. 전쟁동안 나찌당에게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운영이 넘어갔다. 2차 대전 중에도 다행히 극장은 손상되지 않고 남게 된다. 전쟁 후 윈프레드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는 더 이상 관여 못한다는 판결을 받는다. 페스티벌의 운영은 그녀의 두 아들 볼프강과 빌란트에게 넘어간다. 2차 대전 후 미국 점령기 동안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은 군인들의 여흥 장소로 전락하여 병사들의 종교행사, 코메디, 댄싱, 아크로벤틱 등이 공연되었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1951년 7월29일 푸르트 뵐글러에 의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고, 뒤이어 전후 처음 바그너 오페라 공연으로 '파르지팔'이 올려진다. 빌란트 바그너(1917~1966), 볼프강 바그너(1919~2010)까지가 바그너 자손들이 페스티벌을 운영하였고 이어 '리하르트 바그너' 재단이 설립되어 볼프강 바그너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08년 말에 볼프강이 은퇴하고 그의 두 딸 에바 바그너-빠스기예와 카타리나 바그너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글 송중권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울 산 문 화 예 술 회 관

『고객만족도』 조사

공연 및 전시, 회관 서비스 및 시설 등 '만족한다' 90%의 좋은 평가 받아..

2014년 사업 방향 제시, 더욱 사랑받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울산시립예술단 공연과 기획공연 및 전시를 비롯해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지난해 11월 25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19일간 울산대학교 경영대학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or.kr>)를 통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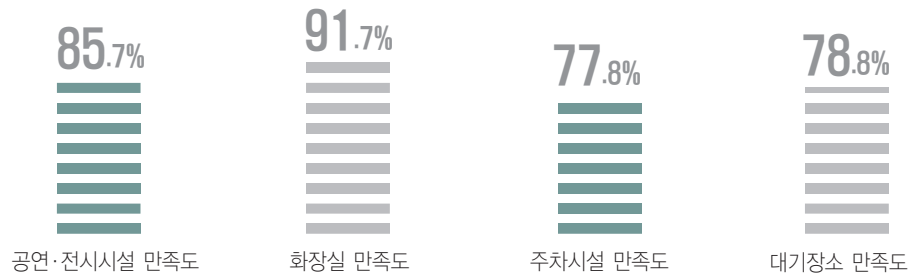
울산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분포도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만족도



울산문화예술회관 시설 만족도



20대 이하에서 60대까지의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 양상을 보인 응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공연 및 전시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54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울산시립교향악단 연주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연장, 화장실 등 시설과 직원들의 태도, 복장 등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90% 이상 '만족' 이라고 응답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주력하고 있는 Arts Friends(유료회원제) 운영에 대해서는 가입비가 저렴한데도 입장권 할인 및 문예지 무료구독, 회원을 위한 초대공연 등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많은 혜택에 8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일부 응답자는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와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개인별 전체적인 문화생활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심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34.4%, 지출은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문화생활에 있어 상당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비용 대비 혜택으로 정의된다고 볼 때,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를 상회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공연 및 전시와 시설운영에 비해,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기 위한 주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차시설, 공연장 로비를 비롯한 대기장소 편리성 등은 80%대에 머물러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이형조 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2014년 과제로 삼고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이 잡힌다.”면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며,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은 물론, 편리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주인은 울산 시민이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한사랑 Silver합창단 창단4주년 기념공연

공연정보 3. 1(화)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사랑 Silver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울산광역시노인 복지 회관과 한사랑silver합창단을 알리고 합창을 통하여 세대통합 및 노인여가생활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함

울산크리스찬 색소폰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공연정보 3. 8(토)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김광욱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교인들로 이루어진 울산 유일한 색소폰 연주 단체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교회음악으로 구성됨

더스트링스챔버 창단연주회

공연정보 3. 12(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스트링스 챔버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그 동안 접하기 힘든 현악 합주곡 위주로 연습 및 연주
공연내용 새로 창단하는 단체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밝고 명쾌한 곡으로 청중들에게 선보임

2014 Classic Music 공연 "Beris Quartet"

공연정보 3. 6(목) 2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예음뮤지카카데미
입 장 료 전석 20,000원
공연개요 한국의 클래식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들을 선발하여 국내 공연활동을 통하여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
프로그램
- 베토벤 String Quartet
- 모리스 라벨 String Quartet
- 로버트 슈만 Piano Quartet

제12회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8(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챔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지역의 음악학원장 및 전문연주자로 구성울산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울산 문화 예술 수준을 높이고자 함

제2회 가족사랑 울산사랑 음악회

공연정보 3. 15(토)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좋은날 음악기획
입 장 료 1층 35,000 2층 25,000
공연개요 2014년 2회로 맞이하는 JCN울산방송의 특별공연 "가족사랑, 울산사랑 음악회"
공연내용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 김남두, 매력적인 목소리의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소프라노 신승아, 바리톤 박정섭과 뉴프라이밍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화사한 봄기운을 선사함

You&예렐랄라

공연정보 3. 7(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예렐랄라
입 장 료 전석 5,000원
공연개요 경남예술고등학교 출신의 음악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국악곡과 서양의 클래식곡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함

2014 사랑의 효잔치

공연정보 3. 12(수) 14: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화방송(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울산지역 내 노인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문화예술

제2회 콰르텟클랑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15(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콰르텟클랑
입 장 료 전석 10,000
공연개요 2013년 창단이후 두 번째 정기연주회 개최로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실내악곡들을 통해 울산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프로그램
- 모짜르트 피아노 4중주
- 슈만 피아노 5중주 "송어"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제2회 콰르텟클랑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15(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콰르텟클랑
입 장 료 전석 10,000
공연개요 2013년 창단이후 두 번째 정기연주회
 개최로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실내악곡
 들을 통해 울산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
 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프로그램
 - 모짜르트 피아노 4중주
 - 슈만 피아노 5중주 "송어"

제34회 울산아가페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29(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CBS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성악연주 및 챔버오케스트라로 이루
 어진 아가페합창단 서른 네번째 정기
 연주회는 새터민(북한 이주민) 가족
 돕기를 위한 합창공연

뮤직&밸리 Festival

공연정보 3. 30(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음악과 밸리댄스로 예술작품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표현방법과 의미를 전달하
 고 새로운 밸리댄스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시각과 음악적 감각 넓힐 수 있는
 작품

더스트링스 챔버와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공연정보 3. 16(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스트링스 챔버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독주 악기를 오
 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하며, 관중에
 게 독주 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
 는 연주회
프로그램
 - 랄로 첼로협주곡 3악장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 보테시니 더블베이스 협주곡 1악장외 5곡

제5회 울산CBS합창단 정기연주회 "창작뮤지컬 그의길"

공연정보 3. 29(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CBS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매년 개최하는 정기연주회 중 다섯 번째
 로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삶을 창작뮤지컬로 공연
공연내용 노비 신분을 가진 한 청년이 누명을 쓰고 죄
 인으로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도 자
 신 목숨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는 조선의 한
 평범한 청년의 도전을 노래하는 창작뮤지컬

제24회 전국무용경연대회

공연정보 3. 23(일) 1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무용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국 초·중·고, 일반인의 무용경연대회
 를 통해 무용교육과 기능향상을 높이며
 역량있는 우수인재 발굴에 기여

울산여성 신문사 창간15주년 신춘 음악회

공연정보 3. 18(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여성신문사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여성신문사 창간 15주년 기념
 신춘음악회

제13회 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30(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남구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매년 두 번의 정기연주회로 울산시민
 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전시 가이드

EXHIBITION

합동 난 전시회

전시기간 3. 1(토)~3. 2(일), 2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한국춘란회
 전시내용 울산 한국춘란회와 화랑난우회의 합동 난 전시회로, 대한민국 산야에 자생하는 한국 춘란 150점을 개별 회원들이 출품·전시

초목난우회 회원전

전시기간 3. 1(토)~3. 2(일), 2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초목난우회
 전시내용 초목난우회의 10주년 기념 전시회로 한국 춘란 300분 및 수석 등 전시

제5회 송경묵연회전

전시기간 3. 6(목)~3. 11(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송경묵연회 (박해찬)
 전시내용 송경묵연회의 다섯 번째 정기 회원전으로, 회원 60명이 1년 동안 틈틈이 연마한 문인화, 산수화 작품 120점을 전시

제7회 우보 배성근 서예전

전시기간 3. 6(목)~3. 11(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배성근)
 전시내용 한글, 한문, 문인화 등 새로운 서예의 미적 탐구 서예작품 및 기존에 전시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과 소품, 병풍, 편액 등 45점을 전시

제3회 울산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3. 13(목)~3. 18(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동호회 (유경묘)
 전시내용 울산사진동호회의 세 번째 정기 회원전으로, 회원들의 2년간 작품 활동을 통해 "흔적"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표현한 사진작품 40점 전시

성끝마을 이야기 사진전

전시기간 3. 13(목)~3. 18(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동구 (김종훈)
 전시내용 "동구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 번째 전시로, 울산 동구의 슬도와 맞닿아 있는 성끝마을의 마을 풍경, 주민들의 일상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 1점과 사진작품 40점 전시

제12회 함월수석회 회원전

전시기간 3. 15(토)~3. 16(일), 2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함월수석회 (손기호)
 전시내용 함월수석회의 열두번째 전시회로, 회원들이 소장해 온 바닷돌 20점 및 강돌 40점, 야생화 25점 등 총 85점 전시

제19회 아시아 미술 교류전

전시기간 3. 20(목)~3. 25(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최명영)
 전시내용 울산미술협회 회원과 중국 장춘시 서화협회 회원들의 한국화, 서양화, 판화, 공예, 조각, 서각, 서예, 문인화 등 회원 450여명의 다양한 작품 교류 전시

제3회 호랑이 똥 회원전

전시기간 3. 27(목)~4. 1(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호랑이똥회 (조경숙)
 전시내용 현대미술의 대중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미술 전시로, 울산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서양화 작품 50점 전시

제1회 민토도자기 도예전

전시기간 3. 27(목)~4. 1(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민토도자기 (진민욱)
 전시내용 민토 도자기 소속 회원 두명의 2인 전시회로, 도예가들이 손으로 빚고 흙으로 표현한 여러 생활소품과 상차림, 도자기 오브제 등 총 20점 전시

제13회 주미향 개인전

전시기간 3. 15(토)~3. 16(일), 2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함월수석회 (손기호)
 전시내용 함월수석회의 열두번째 전시회로, 회원들이 소장해 온 바닷돌 20점 및 강돌 40점, 야생화 25점 등 총 85점 전시

제1회 권녕갑 서예전

전시기간 3. 27(목)~4. 1(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권녕갑)
 전시내용 전통적인 서예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며 한문, 한글 등 다양한 장르의 표현으로 묵향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서예작품 40점 전시

03_대공연장

01		01	· 한사랑 Silver합창단 창단4주년 기념공연 3.1(토) 18:00
02		02	
03		03	
04	· 교향악단 기획공연 3.4(화) 20:00	04	· 뒤편 3.5(수) 19:30
05		05	
06		06	· 2014 Classic Music공연 "흙과 나무" 3.6(목) 20:00
07	· 합창단 제88회 정기공연 3.7(금) 20:00	07	· YOU&예렐랄라 3.7(금) 19:30
08	· 울산크리스찬 색소폰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3.8(토) 17:00	08	· 제12회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8(토) 19:30
09		09	
10		10	
11		11	· 청소년합창단 기획연주회 3.11(화) 19:30
12	· 2014 사랑의 효잔치 3.12(수) 14:00	12	· 위드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3.12(수) 19:30
13		13	
14		14	· 위드챔버오케스트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3.14(금) 19:30
15	· 제2회 가족사랑 울산사랑 음악회 3.15(토) 18:00	15	· 제2회 콰르텟클랑 정기연주회 3.15(토) 19:30
16		16	
17		17	
18	· 울산여성신문사 창간 15주년기념 신춘음악회 3.18(화) 19:30	18	· 청소년교향악단 기획연주회 3.18(화) 19:30
19		19	· 뒤편 3.19(수) 19:30
20		20	
21		21	· 어린이뮤지컬 "밥벌레장군과 꼬리잘린 호랑이" 3.21(금) 11:00
22		22	· 어린이뮤지컬 "밥벌레장군과 꼬리잘린 호랑이" 3.22(토) 11:00, 14:00, 16:00
23		23	
24		24	
25	· 무용단 장춘시초청 공연 3.25(화) 20:00	25	· 모닝콘서트 3.25(화) 11:00
26		26	
27	· 교향악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3.27(목) 20:00	27	
28		28	
29	· 제5회 울산CBS합창단 정기연주회 창작뮤지컬 "그의 길" 3.29(토) 19:30	29	· 제34회 울산아가페합창단 정기연주회 3.29(토) 19:30
30	· 제13회 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30(일) 19:30	30	· 뮤직&밸리 Festival 3.30(일) 19:00
31		31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3_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3 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합동 난 전시회 3. 1(토)~3. 2(일) 2일간	· 초목난우회 회원전 3. 1(토)~3. 2(일) 2일간	· 문수실버작품 전시회 2. 27(목)~3. 4(화) 6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 I 부 2. 6(목)~5. 31(토) 115일간
02					
03					
04					
05					
06	· 제5회 송경묵연회전 3. 6(목)~3.11(화) 6일간				
07					
08					
09					
10					
11					
12					
13	· 제7회 우보 배성근 서예전 3. 13(목)~3. 18(화) 6일간		· 제3회 울산사진동호회 회원전 3. 13(목)~3. 18(화) 6일간	· 성끝마을 이야기 사진전 3. 13(목)~3. 18(화) 6일간	
14					
15		· 제12회 함월수석회 회원전 3. 15(토)~3. 16(일) 2일간			
16					
17					
18					
19					
20	· 제19회 아시아 미술 교류전 3. 20(목)~3. 25(화) 6일간				
21					
22					
23					
24					
25					
26					
27	· 제3회 호랑이 똥 회원전 3. 27(목)~4. 1(화) 6일간	· 제1회 민토도자기 도예전 3. 27(목)~4. 1(화) 6일간	· 제13회 주미향 개인전 3. 27(목)~4. 1(화) 6일간	· 제1회 권영갑 서예전 3. 27(목)~4. 1(화) 6일간	
28					
29					
30					
31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섬’,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co.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태화루 건립기념
창작뮤지컬

태화강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4. 4. 11(금) ~ 12(토)

